東大新聞

發行人 趙鄭孫 明道
編輯人 趙鄭孫 基璨
主幹 孫道 晟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㉒ 3130~9
本社直通 ㉒ 8498

總會長 四單一 戰線

法政大會長만 單一候補

總副會長 女學生候補 異彩

68學年度에 學生會를 이끌어갈 學生會長團 立候補者가 11일 確定었다。選擧管理委員會에登錄된 各級幹部후보자는 2명내지 3명으로난립되어있으나 法政大會長만은 이명재(政3) 군이 單一候補로 되어있다。全校生의 關心이 집중된 總學生會長에는 金相奎(法3) 田泳和(醫3) 군이입후보하여 三巴戰을 벌리고있다。

學生會長團 立候補者登錄마감일인 11일까지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각급임후보자총수는 15명으로 그중에는 總副會長임후보자에 女學生候補者가 있어 더욱 큰 關心을불러 일으켰다。

單一候補가된 法政大會長은 無投票當選될것이確實하나 여타의 會長은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佛敎大＝김상철(佛) 숙신옥(哲3) 서성원(印哲3) ▲文理科大＝정영길(統3) 한성규(物3) ▲經商大＝이석부(營3) 유연상(商3) 신재익(經3) ▲農林大＝손학중(農經3) 이용철(農3) ▲法政大＝이명재(政3) ▲産業大＝김경배(食工3) 임호유(食工3) ▲2部大＝김인식(2部商3) 김성대(2部營3)

◇單科大學會長

▲2번＝金哲鎭(演3) ▲2번＝田泳和(營3) ▲3번＝金相奎(法3)

◇總副會長

▲1번＝洪月杓(法3) ▲2번＝韓東洙(行3)

◇總學生會長

▲1번＝金哲鎭(演3) ▲2번＝田泳和(營3) ▲3번＝金相奎(法3)

◇學生會長

▲哲學科＝임효성 ▲印哲＝이길동 ▲國文科＝하덕조 ▲史學科＝박청영 ▲數學科＝김재학 ▲物理科＝신장현 ▲統計科＝이상열 ▲政外科＝김복현 ▲經濟科＝임중권 ▲農學科＝이중길 ▲林學科＝권중중 ▲歷生科＝김병우 ▲食工科＝유서천

◇學年 代議員

▲國文科＝손낙훈 ▲物理科＝數學科＝이춘신 ▲行政科＝배대원 ▲警行科＝김광호 ▲經濟科＝안춘천 ▲商學科＝조충구 ▲經營科＝최중수 ▲農學科＝김광남 ▲農經科＝林學科＝김성대 ▲農生科＝조동휘 ▲歷生科＝이광원

◇2학년 代議員

▲數學科＝맹완철 ▲經濟科＝박근호 ▲商學科＝진창운 ▲農經科＝김창수 ▲歷生科＝이진우 ▲法科＝유성배

◇學會長 및 總副會長 (法3) 金哲鎭(演3) 田泳和(營3) 이명재 (政3) 군이 單一候補로 되어있다。全校生의 關心이 집중된 總學生會長에는 金相奎(法3) 金哲鎭(演3) 田泳和(營3) 군이입후보하여 三巴戰을 벌리고있다。

이미 확정된 새學會長 및 2、3학년 代議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學會長

▲哲學科＝임효성 ▲印哲＝이길동 ▲國文科＝하덕조 ▲史學科＝박청영 ▲數學科＝김재학 ▲物理科＝신장현 ▲統計科＝이상열 ▲政外科＝김복현 ▲經濟科＝임중권 ▲農學科＝이중길 ▲林學科＝권중중 ▲食工科＝유서천

◇學年 代議員

▲國文科＝손낙훈 ▲物理科＝數學科＝이춘신 ▲行政科＝배대원 ▲警行科＝김광호 ▲經濟科＝안춘천 ▲經營科＝최중수 ▲農學科＝김광남 ▲農經科＝林學科＝김성대 ▲農生科＝조동휘 ▲歷生科＝이광원

◇2학년 代議員

▲數學科＝이경구 ▲經濟科＝맹완철 ▲商學科＝진창운 ▲農經科＝김창수 ▲歷生科＝이진우 ▲法科＝유성배 ▲行政科＝김광남

◇學會長 및 總副會長

▲佛敎大會長(C304) ▲文理大會長(C309) ▲法政大會長(B309) ▲經商大會長(중강당) ▲農林大會長(B206) ▲産業大會長(B102) ▲二部大會長(C309)

(12일 오전11시)

▲會長團立候補벽보첨부 (12일~15일)

▲選擧人名簿열람기간 (8일~11일)

▲會長團소견발표 原稿提出기간 (9일~12일)

▲會長團소견발표日時 (14일 오전10시)

▲會長團投票日時 (15일 오전9시~오후6시)

▲會長團開票日時 (15일 오후7시부터)

◇所見發表場所

▲總會長및 總副會長 (중강당)

▲佛敎大會長(C304) ▲文理大會長(C309) ▲法政大會長(B309) ▲經商大會長(중강당) ▲農林大會長(B206) ▲産業大會長(B102) ▲二部大會長(C309)

學生會長團 立候補者登錄마감일인 11일까지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각급임후보자총수는 15명으로 그중에는 總副會長임후보자에 女學生候補者가 있어 더욱 큰 關心을불러 일으켰다。

單一候補가된 法政大會長은 無投票當選될것이確實하나 여타의 會長은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佛敎大＝김상철(佛) 숙신옥(哲3) 서성원(印哲3) ▲文理科大＝정영길(統3) 한성규(物3) ▲經商大＝이석부(營3) 유연상(商3) 신재익(經3) ▲農林大＝손학중(農經3) 이용철(農3) ▲法政大＝이명재(政3) ▲産業大＝김경배(食工3) 임호유(食工3) ▲2部大＝김인식(2部商3) 김성대(2部營3)

◇單科大學會長

▲2번＝田泳和(營3) ▲3번＝金相奎(法3)

◇總副會長

▲1번＝洪月杓(法3) ▲2번＝韓東洙(行3)

◇總學生會長

▲1번＝金哲鎭(演3) ▲2번＝田泳和(營3) ▲3번＝金相奎(法3)

◇學生會長

▲哲學科＝임효성 ▲印哲＝이길동 ▲國文科＝하덕조 ▲史學科＝박청영 ▲數學科＝김재학 ▲物理科＝신장현 ▲統計科＝이상열 ▲政外科＝김복현 ▲經濟科＝임중권 ▲農學科＝이중길 ▲林學科＝권중중 ▲食工科＝유서천

◇學年 代議員

▲國文科＝손낙훈 ▲物理科＝數學科＝이춘신 ▲行政科＝배대원 ▲警行科＝김광호 ▲經濟科＝안춘천 ▲經營科＝최중수 ▲農學科＝김광남 ▲農經科＝林學科＝김성대 ▲農生科＝조동휘 ▲歷生科＝이광원

◇2학년 代議員

▲數學科＝맹완철 ▲經濟科＝박근호 ▲商學科＝진창운 ▲農經科＝김창수 ▲歷生科＝이진우 ▲法科＝유성배 ▲行政科＝김광남

◇學會長 및 總副會長

▲佛敎大會長(C304) ▲文理大會長(C309) ▲法政大會長(B309) ▲經商大會長(중강당) ▲農林大會長(B206) ▲産業大會長(B102) ▲二部大會長(C309)

(12일 오전11시)

▲會長團立候補벽보첨부 (12일~15일)

▲選擧人名簿열람기간 (8일~11일)

▲會長團소견발표 原稿提出기간 (9일~12일)

▲會長團소견발표日時 (14일 오전10시)

▲會長團投票日時 (15일 오전9시~오후6시)

▲會長團開票日時 (15일 오후7시부터)

◇所見發表場所

▲總會長및 總副會長 (중강당)

▲佛敎大會長(C304) ▲文理大會長(C309) ▲法政大會長(B309) ▲經商大會長(중강당) ▲農林大會長(B206) ▲産業大會長(B102) ▲二部大會長(C309)

學生會長團 立候補者登錄마감일인 11일까지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각급임후보자총수는 15명으로 그중에는 總副會長임후보자에 女學生候補者가 있어 더욱 큰 關心을불러 일으켰다。

單一候補가된 法政大會長은 無投票當選될것이確實하나 여타의 會長은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佛敎大＝김상철(佛) 숙신옥(哲3) 서성원(印哲3) ▲文理科大＝정영길(統3) 한성규(物3) ▲經商大＝이석부(營3) 유연상(商3) 신재익(經3) ▲農林大＝손학중(農經3) 이용철(農3) ▲法政大＝이명재(政3) ▲産業大＝김경배(食工3) 임호유(食工3) ▲2部大＝김인식(2部商3) 김성대(2部營3)

◇單科大學會長

▲2번＝田泳和(營3) ▲3번＝金相奎(法3)

◇總副會長

▲1번＝洪月杓(法3) ▲2번＝韓東洙(行3)

◇總學生會長

▲1번＝金哲鎭(演3) ▲2번＝田泳和(營3) ▲3번＝金相奎(法3)

◇學生會長

▲哲學科＝임효성 ▲印哲＝이길동 ▲國文科＝하덕조 ▲史學科＝박청영 ▲數學科＝김재학 ▲物理科＝신장현 ▲統計科＝이상열 ▲政外科＝김복현 ▲經濟科＝임중권 ▲農學科＝이중길 ▲林學科＝권중중 ▲食工科＝유서천

◇學年 代議員

▲國文科＝손낙훈 ▲物理科＝數學科＝이춘신 ▲行政科＝배대원 ▲警行科＝김광호 ▲經濟科＝안춘천 ▲經營科＝최중수 ▲農學科＝김광남 ▲農經科＝林學科＝김성대 ▲農生科＝조동휘 ▲歷生科＝이광원

◇2학년 代議員

▲數學科＝맹완철 ▲經濟科＝박근호 ▲商學科＝진창운 ▲農經科＝김창수 ▲歷生科＝이진우 ▲法科＝유성배 ▲行政科＝김광남

◇學會長 및 總副會長

▲佛敎大會長(C304) ▲文理大會長(C309) ▲法政大會長(B309) ▲經商大會長(중강당) ▲農林大會長(B206) ▲産業大會長(B102) ▲二部大會長(C309)

(12일 오전11시)

▲會長團立候補벽보첨부 (12일~15일)

▲選擧人名簿열람기간 (8일~11일)

▲會長團소견발표 原稿提出기간 (9일~12일)

▲會長團소견발표日時 (14일 오전10시)

▲會長團投票日時 (15일 오전9시~오후6시)

▲會長團開票日時 (15일 오후7시부터)

◇所見發表場所

▲總會長및 總副會長 (중강당)

▲佛敎大會長(C304) ▲文理大會長(C309) ▲法政大會長(B309) ▲經商大會長(중강당) ▲農林大會長(B206) ▲産業大會長(B102) ▲二部大會長(C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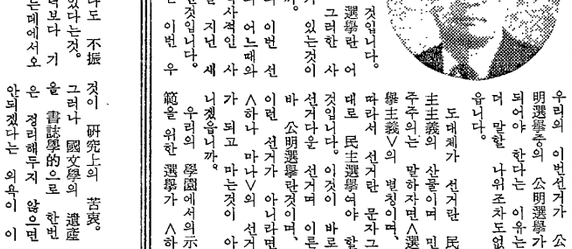
學會長、代議員 31명當選확정

9일까지 끝마치기로된 學會長 및 代議員選擧가 未硏究作品을 中心으로 11일현재에도 학회장13명 내년초 敎學社 대의원18명밖에 선출하지 에서 발간할 예정으로 못하고 있어 선거사무의 그執筆을 끝냈다。 부진상을 나타냈다。 「韓國古典小說의硏究」 전부 선거가 끝난 학과는 數學科와 應用生物學科뿐인데 다른 학과는 學會長만을、 혹은 學年代議員만을 선출했다。

아직 學會長이나 代議員選擧를 마치지못한 學科나 學年은 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가 끝날 때까지 마쳐야한다。

公明選擧를 위하여

□ 鄭學生處長談話 □



사회에 나가서 公明選擧를 할줄모르는 사람들은 학원에서 선거를 한번도못 해 본 구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국의 풍토에 公明選擧를 심어 보기위한 역군으로 등장하였읍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스스로가 試驗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하나의 示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大學社會의 選擧란 어느 경우나 그러한 사명과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大學의 이번 선거는 과거의 어느때와도 다른 역사적인 사명과 의의를 지닌 새로운 선거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우리의 선거가 과거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학원의 선거가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선거란 民主主義의 산물이며 민주주의는 말하자면、 選擧主義＞의 별칭이며、 따라서 선거란 문자그대로 民主選擧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다운 선거며 이른바 公明選擧란것이며、 이런 선거가 아니라면 ＜하나가 마나＞의 선거가 되고 마는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의 學園에서의 示範을 위한 選擧가 ＜하나 마나＞의 선거가된 주관이기보다、 祖國의 민주주의 그날이 오기까지 반역하는 유권자에게 더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른바 公明選擧의 뜻이며、 理性에의한 選擧의 뜻입니다。 人間天賦의 理性은 大學敎育에 의하여 일층 촉발·각성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公明選擧란 되찾은 理性에의 한선거이니 거기엔 그 날이나 앞혹이 있을뿐 良心의 가책이 없고 良心의 가책을 여지가 없음 이 따를 여지가 없음 새 기틀을 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公明選擧에의 두터운關心은 선거에 있어서의 일체의 비민주성을 막는 유일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 학원의 선거는

學界으로 본 의문점

社說

만족할만한 選擧되기를
—68學年度各種選擧에부쳐

新學期의 開講과 더불어 금년의 學內選擧도 때를 찾아왔다。學內選擧實施의 歷史가 짙어가는데도 그 理由가 있겠지만, 근래에 이르러 無關心하고 無爲한 選擧過程의 양상을 들어내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選擧 그 自體와 그 선거에 기대를 거는 參與意識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의 選擧의 意義와 그 선거결과가 결머져야 할 것을 을누구 빗어지는 矛盾관계가 결과하는 事態이다。

本欄은 學內選擧에 당할 때마다 그러한 事項에 관련하여 大學社會에 있어서의 選擧의 意義와 그 선거결과가 결머져야 할 것을 을누구 누히 지적해 왔고, 당부해 왔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大學社會들 위하여 만족할 만한 선거이었다고는 斷言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 점검을 강조하고 力說하고자 하는것이다。

우리의 大學社會는 激한 분위기 속에서 투쟁했고 무러울고 인색했던 여름방학이었지만 그 휴식기간동안에 우리의피로움과 의분과 대로는 지나친 우리의행동이 저지른 과오를 깨닫기도하여 激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그렇다고해서 그 激動으로부터 벗어난것이 스스로의 義憤앞에서의 自己屈服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보다 먼앞을 내다보는 젊은知性으로서의 理性을具體化하는 기위한 態度라고 自負하는것이다。이러한 自負心은 올해의 선거에 반영되어야할 강조하고 안목으로선거에 임하자는 것이다。

그러하여 첫째로 韓國의 全體적인 政治社會를 學問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知性的인 선거를 치루어보자는 태도의 간직이다。그 태도만에 希望적인 靑年계층의 政治人들에 대한 정치적 안정의 절실감을 惡化시켜주는 결장이기 때문이다。둘째로는 政治적 不均衡상태에놓여있는 이상황에서 知性人으로서우리의 政治社會에 대한 內在적인 分析으로 접근하는 태도의 간직이다。

우리는 한국의 知性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非韓國적인 觀點에서 韓國과 내민족을 말해왔다。우리가 指向하는 내나라가 어떠한것인가를 자신있게 또는 만족스럽게 발하여 보지 못했다。우리는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韓國 절은知性의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게한 교훈을 남겨주기도했다。그경험을 우리는 生動시키지 못했던것이다。새로운 각오와 각성으로써임해야할 것이다。

아쉬운한 斷面인 선거에서 우리는 學內選擧를 통하여 讀書人의 良心을 깨우쳐 보자고 아랑곳없이 소신도 발휘대신했다。

읽었다기보단 넘기는 재미에 팔려 훑어보았다 讀人인줄 전연 몰랐었다 그러나 讀者의 지식에 대한 展望도 없지 않았다。그러나 비록 愛讀의 순간에도 입자만 만나면 반색하는 것이 책이다。

그러나 書籍은 읽는 눈동자이는 불명 나라의 底力인 동시에 겨레의 底力이다。讀書는 他日을위한 tool의 探索戰이자 來日에의 架橋다。여기에 勸奬의 뜻이있다。

나는 Fragonard의 그림 「讀書하는 少女」를 퍽 좋아한다。거기에는 가만한 내음이몰씬해서다。그 손에 들린 책의 知識이 스러나고 해벌어지는 마음을 도사려 주는 그림이기 때문이다。거기가 그 오똑한 자세는 책이 감추고있는 온갖양금을 봉황 호비고 남을 앙끼임에서다。

讀書子를 읽는 눈동자 거룩에 항복치 않음장 비가없다。幸福이 그의 것이요 成功 또한 그의 것이다。杜詩의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도 실은자랑과 교만 읽고 읽고 讀하는 것이 正則이다 보물단지 다。葉穩가 아닌 노직 가밥이가 現代의 슬기를 이 보물단지 기다렸고 또한 기다린다。따라서 책은 零에 가깝다。身分과 관계없이時 代를 초월하니까 나 역시 맞 百讀 千讀이 바지를색 서고자 읽는 괄목건이 었다。그렇다고 후회는 결대 아니다。

읽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책이다。

그러나 지적해 왔고, 당부해 왔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大學社會들 위하여 만족할 만한 선거이었다고는斷言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 점검을 강조하고 力說하고자 하는것이다。

우리의 大學社會는 激한 분위기 속에서 투쟁했고 무러울고 인색했던 여름방학이었지만 그 휴식기간동안에 우리의피로움과 의분과 대로는 지나친 우리의행동이 저지른 과오를 깨닫기도하여 激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그렇다고해서 그 激動으로부터 벗어난것이 스스로의 義憤앞에서의 自己屈服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보다 먼앞을 내다보는 젊은知性으로서의 理性을具體化하는 기위한 態度라고 自負하는것이다。이러한 自負心은 올해의 선거에 반영되어야할 강조하고 안목으로선거에 임하자는 것이다。

그러하여 첫째로 韓國의 全體적인 政治社會를 學問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知性的인 선거를 치루어보자는 태도의 간직이다。그 태도만에 希望적인 靑年계층의 政治人들에 대한 정치적 안정의 절실감을 惡化시켜주는 결장이기 때문이다。둘째로는 政治적 不均衡상태에놓여있는 이상황에서 知性人으로서우리의 政治社會에 대한 內在적인 分析으로 접근하는 태도의 간직이다。

우리는 한국의 知性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非韓國적인 觀點에서 韓國과 내민족을 말해왔다。우리가 指向하는 내나라가 어떠한것인가를 자신있게 또는 만족스럽게 발하여 보지 못했다。우리는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韓國 절은知性의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게한 교훈을 남겨주기도했다。그경험을 우리는 生動시키지 못했던것이다。새로운 각오와 각성으로써임해야할 것이다。

아쉬운한 斷面인 선거에서 우리는 學內選擧를 통하여 讀書人의 良心을 깨우쳐 보자고 아랑곳없이 소신도 발휘대신했다。

읽었다기보단 넘기는 재미에 팔려 훑어보았다 讀人인줄 전연 몰랐었다 그러나 讀者의 지식에 대한 展望도 없지 않았다。그러나 비록 愛讀의 순간에도 입자만 만나면 반색하는 것이 책이다。

그러나 書籍은 읽는 눈동자이는 불명 나라의 底力인 동시에 겨레의 底力이다。讀書는 他日을위한 tool의 探索戰이자 來日에의 架橋다。여기에 勸奬의 뜻이있다。

나는 Fragonard의 그림 「讀書하는 少女」를 퍽 좋아한다。거기에는 가만한 내음이몰씬해서다。그 손에 들린 책의 知識이 스러나고 해벌어지는 마음을 도사려 주는 그림이기 때문이다。거기가 그 오똑한 자세는 책이 감추고있는 온갖양금을 봉황 호비고 남을 앙끼임에서다。

讀書子를 읽는 눈동자 거룩에 항복치 않음장 비가없다。幸福이 그의 것이요 成功 또한 그의 것이다。杜詩의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도 실은자랑과 교만 읽고 읽고 讀하는 것이 正則이다 보물단지 다。葉穩가 아닌 노직 가밥이가 現代의 슬기를 이 보물단지 기다렸고 또한 기다린다。따라서 책은 零에 가깝다。身分과 관계없이時 代를 초월하니까 나 역시 맞 百讀 千讀이 바지를색 서고자 읽는 괄목건이 었다。그렇다고 후회는 결대 아니다。

읽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책이다。

勸書欄

<圖書館長·文理大敎授> 李丙疇

과일따는季節、책은無私한보물단지

리빛의 결을이 새파란하늘에 어리어 사뭇사뭇 벼아의 빛저음이랄까。서고자 읽는 괄목건이 었다。그렇다고 후회는 결대 아니다。

읽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책이다。

그러나 지적해 왔고, 당부해 왔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大學社會들 위하여 만족할 만한 선거이었다고는斷言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 점검을 강조하고 力說하고자 하는것이다。

우리의 大學社會는 激한 분위기 속에서 투쟁했고 무러울고 인색했던 여름방학이었지만 그 휴식기간동안에 우리의피로움과 의분과 대로는 지나친 우리의행동이 저지른 과오를 깨닫기도하여 激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그렇다고해서 그 激動으로부터 벗어난것이 스스로의 義憤앞에서의 自己屈服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보다 먼앞을 내다보는 젊은知性으로서의 理性을具體化하는 기위한 態度라고 自負하는것이다。이러한 自負心은 올해의 선거에 반영되어야할 강조하고 안목으로선거에 임하자는 것이다。

그러하여 첫째로 韓國의 全體적인 政治社會를 學問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知性的인 선거를 치루어보자는 태도의 간직이다。그 태도만에 希望적인 靑年계층의 政治人들에 대한 정치적 안정의 절실감을 惡化시켜주는 결장이기 때문이다。둘째로는 政治적 不均衡상태에놓여있는 이상황에서 知性人으로서우리의 政治社會에 대한 內在적인 分析으로 접근하는 태도의 간직이다。

우리는 한국의 知性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非韓國적인 觀點에서 韓國과 내민족을 말해왔다。우리가 指向하는 내나라가 어떠한것인가를 자신있게 또는 만족스럽게 발하여 보지 못했다。우리는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韓國 절은知性의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게한 교훈을 남겨주기도했다。그경험을 우리는 生動시키지 못했던것이다。새로운 각오와 각성으로써임해야할 것이다。

아쉬운한 斷面인 선거에서 우리는 學內選擧를 통하여 讀書人의 良心을 깨우쳐 보자고 아랑곳없이 소신도 발휘대신했다。

읽었다기보단 넘기는 재미에 팔려 훑어보았다 讀人인줄 전연 몰랐었다 그러나 讀者의 지식에 대한 展望도 없지 않았다。그러나 비록 愛讀의 순간에도 입자만 만나면 반색하는 것이 책이다。

그러나 書籍은 읽는 눈동자이는 불명 나라의 底力인 동시에 겨레의 底力이다。讀書는 他日을위한 tool의 探索戰이자 來日에의 架橋다。여기에 勸奬의 뜻이있다。

나는 Fragonard의 그림 「讀書하는 少女」를 퍽 좋아한다。거기에는 가만한 내음이몰씬해서다。그 손에 들린 책의 知識이 스러나고 해벌어지는 마음을 도사려 주는 그림이기 때문이다。거기가 그 오똑한 자세는 책이 감추고있는 온갖양금을 봉황 호비고 남을 앙끼임에서다。

讀書子를 읽는 눈동자 거룩에 항복치 않음장 비가없다。幸福이 그의 것이요 成功 또한 그의 것이다。杜詩의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도 실은자랑과 교만 읽고 읽고 讀하는 것이 正則이다 보물단지 다。葉穩가 아닌 노직 가밥이가 現代의 슬기를 이 보물단지 기다렸고 또한 기다린다。따라서 책은 零에 가깝다。身分과 관계없이時 代를 초월하니까 나 역시 맞 百讀 千讀이 바지를색 서고자 읽는 괄목건이 었다。그렇다고 후회는 결대 아니다。

읽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책이다。

美國에 있어서의 韓國語學

外面당하는 韓國語

大學에선 追加과목으로 處理
美人의 관심、아직도 遙遠

<韓國語敎育院主幹> 宋堯仁

우선 美國內에서도 韓國學 講座를 가진 歷史가 比較的 짧고 또 僑胞가 자그만치 8천명이나 살고 있다는 하와이의 「하와이大學」부터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지난 봄學期에 이곳에 등록을 한 學生은 모두 15명이되어 美國內의 여러 大學보다도 數字的인 優位는 보여주었지만 하와이大學내에서의 他東 韓國語敎育은 아직도 極히 미흡한 것이다。

이곳에는 5명이 登錄하고 1명은 初級 그리고 2명은 上級에서 공부하고 있었다。이것도 數十名내지 1백여명을 해 온 中國語나 日本語 등의 韓國語와 文學課程에서 비하면 그 規模가 너무도 초라한것이었다。하와이大學에서는 今年度正規學期에 2명이 上級班에 그리고 5名이 初級에 登錄을 했을 뿐이다。

班에 있어서 韓國語敎育은 그 方面의 專門家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곳은 韓國語敎育에 있어서 그 이상 더 바랄 수 없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15명이 各級 韓國語文學과정에 登錄을했었다는 말은 적어도 上級班에서는 講座를 개설할 수 있을 만큼 많은 學生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내년의 이때에 이르러 냉연한 비판을 받아不斷定되지 않을수없는 실정이다。

韓國語敎育院主幹 宋堯仁 <外國語敎育院主幹>

大學閑話

近代化

<農林大敎授·農博> 朴勝萬

다방이나 대포집에서 까지 안되는소리。또미국에서는 地下道路로 바꾸어진다는 高架道路가 우리나라에서는 槪頭되고있는 모양。過不如不及이 라는 聖賢의 말씀이 떠오른다。

젊은 남녀가 손잡고 다니는 소모정책의 수입은말도 아직도 「近代化」란 말이울려 나오고있다。유행어로 되어있는것이다。어느녀름날 北阿峒洞으로 넘어가는 어덕의 貧村 샛길을 걸은일이 있었다。여름철이기 때문에 문들이활짝 열려져있었다。전축이 보였다 퍽近代化(?)되었구나, 하는 말이 무심코 나버렸다。또, 이느 결방살이방에 텔레비전 냉장고 (의국계) 가있는것이는에 뜨인일이 있었다。무고리 움이 내자신에 잡들었었다。 순간적이었다。모두가內容的이 아니고 가容的이다。 過剩意慾的인데서 일어난것이라 하겠다。

생산확립이되기 전에 미국에서의 전축과 텔레비전 냉장고 (의국계) 가있는것이는

讀書와 讀書

◇……가을은 열매가 익는 계 ……절。그것은 곡식의 結實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 ……다。 정신의 豊饒도 함 ……계 뜻하는 것。 그러나 ……册을 外面하는 경향은 오늘의 精神的 不毛를 가져오고 있다。여기 讀 書의 季節에 「讀書와 勸書」라는 對話를 通하 여 우리 마음의 糧食을 기르는 길을 찾아본다。

▲司會=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와같이 오셔 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 선생님들을 모시게 된것은 9月에 讀書週間도 돌았고 또한가을은 讀書의 季節이기도하다는 金言도 있고해서 올해에는 학생들에게 「讀書를 强要하기 보다도 어떻게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책을 읽을수 있게 할수 있을까」하는 問題를 主題로 삼아 高見을 듣고자합니다。 어떻읍니까? 선생님들의 意見은…

▲張=참으로 좋은 着想입니다。옛말에 「말은 江가에 매어놓고 물을 안주더라」는 말의 뜻처럼 학교에 학생을 모아놓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두가지의 性格이 있을줄 알아요。하나는 外部的으로 말하자면 敎壇에서 「나는 大學時節에 두손 部門 2萬권을 읽었다」하면 이 말을 들은 학생은 敎授도 學生時節에 그렇게 읽었다는데 나도 한번 읽어 보아야지 하는意欲을 길러주는 形式이 있겠고、또 하나는 학생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울어 나오도록 環境을 만들어 주어서 圖書館에 파묻혀 보겠다는 決意가 앞서도록 인도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강의할때에 가끔 어싸이멘트를 내주기도 합니다。

▲李=그것도 古法이겠죠。그러나 나는 牧師가 聖經을읽고 敎授가 自己專攻圖書를 읽고학생이 노우트나敎科書를 中心으로 읽는 그런職業的인 讀書보다도 가슴도 되고 또 讀書週間도 되어서 圖書館에서 혹시 학생들에 敎養讀書를 권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어 敎養讀書에 한해서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강의중에 무슨 자극을 주는 일이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말하자면 「나는 무슨 책을 읽고 참으로 감명깊어 人生의 方向을 잡고 人生觀을 세웠다。」든지 또는 「靑年時節에는 이 렇책을 읽어야한다」든지하는 흥미를돋구어 줘야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新聞社에서는 知的인 흥미를 이르킬수있는 캠페인을해야하고 圖書館에서는 新刊책이 나오자마자 즉시로 揭示나 新聞에 分類記號까지 달아서 친절히 良書를紹介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金=참으로 좋은말씀들입니다。우리 自然科學系統에도 많이 있어 學生들에게 敎養讀書를많이 備置해주셔야 하겠읍니다。

▲司會=그렇지 않아도 自然科學系에 속한 圖書는 이는 한이 있더라도 自然科學系에 속한 圖書를 더 많이 사들이도록 豫算을 짜고 있읍니다。 그러면 話題를 돌리겠읍니다。

사실 圖書館에서는 特殊閱覽室을 달리 할 수는 없는가。參考및 定期刊行物室을 보다 効果的으로 利用할 수는 없는가。硏究室도마련되었으니 그곳에 備置한 圖書까지 생각하고 있읍니다。선생님들께서 이점을 留意하셔서 이機會에 圖書館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느냐」하는 말씀이라도 계시면…

▲李=圖書館에 대하여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못하겠읍니다。 그저 「圖書館이 저 건너 建物이다」하는 정도요、「微弱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책이 없읍니다。우리가 가게에 물건을사러 갈때 「나 가게에 가면 무슨 물건이든지 있더라」는 경험을 가지면 그가게만을 찾듯이 圖書館에 가면 무슨 資料든지 갖추고있다」는 信念이 앞서야 하겠는데 「우리 圖書館에 그책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부터서 굴뜨기 고지없읍니다。 우리大學의 資料를 어떻게 가 모르는데 아니어서무리하게 말씀못드리겠읍니다마는、그러나 적어도학생들의 基本圖書、敎授들의 專攻에 必要한 最少限의 硏究圖書는 갖추어 주셔서 바랍니다。

▲張=참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서가 아니라 講義하는 도중에、홍미스꾸의 「法의精神」을 읽어 오라고했는데 학생들이 돈이 없기때문에 사지는 못하고 도서관에 가니깐 책이 있던것을 어느학생이 벌써 대출해가서 레포트를 쓸수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여러가지 理由로 하겠지만 꼭 必要한 책은 몇 책씩있어야할 줄로 하겠지만 꼭 무슨方法이든지 資料와학생이 멀어질수 없도록 敎育의 방침도 「도서관이 있다느는 것을 머리속에 두면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도록 애씀 좋습니다。

▲金=저이 理工系는 무엇보다도 저널이 생명이 노우트나敎科書를 中心으로 읽는 그런職業的인 讀書보다도 가슴도 되고 또 讀書週間도 되어서 圖書館에서 혹시 학생들에 敎養讀書를 권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어 敎養讀書에 한해서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강의중에 무슨 자극을 주는 일이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말하자면 「나는 무슨 책을 읽고 참으로 감명깊어 人生의 方向을 잡고 人生觀을 세웠다。」든지 또는 「靑年時節에는 이 렇책을 읽어야한다」든지하는 흥미를돋구어 줘야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新聞社에서는 知的인 흥미를 이르킬수있는 캠페인을해야하고 圖書館에서는 新刊책이 나오자마자 즉시로 揭示나 新聞에 分類記號까지 달아서 친절히 良書를紹介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司會=그렇지 않아도 自然科學系에 속한 圖書는 이는 한이 있더라도 自然科學系에 속한 圖書를 더 많이 사들이도록 豫算을 짜고 있읍니다。 그러면 話題를 돌리겠읍니다。

사실 圖書館에서는 特殊閱覽室을 달리 할 수는 없는가。參考및 定期刊行物室을 보다 効果的으로 利用할 수는 없는가。硏究室도마련되었으니 그곳에 備置한 圖書까지 생각하고 있읍니다。선생님들께서 이점을 留意하셔서 이機會에 圖書館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느냐」하는 말씀이라도 계시면…

▲李=圖書館에 대하여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못하겠읍니다。 그저 「圖書館이 저 건너 建物이다」하는 정도요、「微弱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책이 없읍니다。우리가 가게에 물건을사러 갈때 「나 가게에 가면 무슨 물건이든지 있더라」는 경험을 가지면 그가게만을 찾듯이 圖書館에 가면 무슨 資料든지 갖추고있다」는 信念이 앞서야 하겠는데 「우리 圖書館에 그책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부터서 굴뜨기 고지없읍니다。 우리大學의 資料를 어떻게 가 모르는데 아니어서무리하게 말씀못드리겠읍니다마는、그러나 적어도학생들의 基本圖書、敎授들의 專攻에 必要한 最少限의 硏究圖書는 갖추어 주셔서 바랍니다。

▲張=참으로 좋은 着想입니다。옛말에 「말은 江가에 매어놓고 물을 안주더라」는 말의 뜻처럼 학교에 학생을 모아놓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두가지의 性格이 있을줄 알아요。하나는 外部的으로 말하자면 敎壇에서 「나는 大學時節에 두손 部門 2萬권을 읽었다」하면 이 말을 들은 학생은 敎授도 學生時節에 그렇게 읽었다는데 나도 한번 읽어 보아야지 하는意欲을 길러주는 形式이 있겠고、또 하나는 학

讀書환경만들어주도록
무엇보다 중요한「意慾」

座談會
月刊專門誌들 完全구비
「리저브」씨스템 構想中

敎育의 방침도 「도서관이 있다느는 것을 머리속에두면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金=저이 理工系는 무엇보다도 저널이 생명이 노우트나敎科書를 中心으로 읽는 그런職業的인 讀書보다도 가슴도 되고 또 讀書週間도 되어서 圖書館에서 혹시 학생들에 敎養讀書를 권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어 敎養讀書에 한해서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강의중에 무슨 자극을 주는 일이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말하자면 「나는 무슨 책을 읽고 참으로 감명깊어 人生의 方向을 잡고 人生觀을 세웠다。」든지 또는 「靑年時節에는 이 렇책을 읽어야한다」든지하는 흥미를돋구어 줘야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新聞社에서는 知的인 흥미를 이르킬수있는 캠페인을해야하고 圖書館에서는 新刊책이 나오자마자 즉시로 揭示나 新聞에 分類記號까지 달아서 친절히 良書를紹介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司會=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와같이 오셔 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 선생님들을 모시게 된것은 9月에 讀書週間도 돌았고 또한가을은 讀書의 季節이기도하다는 金言도 있고해서 올해에는 학생들에게 「讀書를 强要하기 보다도 어떻게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책을 읽을수 있게 할수 있을까」하는 問題를 主題로 삼아 高見을 듣고자합니다。 어떻읍니까? 선생님들의 意見은…

▲張=참으로 좋은 着想입니다。옛말에 「말은 江가에 매어놓고 물을 안주더라」는 말의 뜻처럼 학교에 학생을 모아놓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두가지의 性格이 있을줄 알아요。하나는 外部的으로 말하자면 敎壇에서 「나는 大學時節에 두손 部門 2萬권을 읽었다」하면 이 말을 들은 학생은 敎授도 學生時節에 그렇게 읽었다는데 나도 한번 읽어 보아야지 하는意欲을 길러주는 形式이 있겠고、또 하나는 학

▲司會=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와같이 오셔 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 선생님들을 모시게 된것은 9月에 讀書週間도 돌았고 또한가을은 讀書의 季節이기도하다는 金言도 있고해서 올해에는 학생들에게 「讀書를 强要하기 보다도 어떻게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책을 읽을수 있게 할수 있을까」하는 問題를 主題로 삼아 高見을 듣고자합니다。 어떻읍니까? 선생님들의 意見은…

▲張=참으로 좋은 着想입니다。옛말에 「말은 江가에 매어놓고 물을 안주더라」는 말의 뜻처럼 학교에 학생을 모아놓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두가지의 性格이 있을줄 알아요。하나는 外部的으로 말하자면 敎壇에서 「나는 大學時節에 두손 部門 2萬권을 읽었다」하면 이 말을 들은 학생은 敎授도 學生時節에 그렇게 읽었다는데 나도 한번 읽어 보아야지 하는意欲을 길러주는 形式이 있겠고、또 하나는 학

▲李=圖書館에 대하여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못하겠읍니다。 그저 「圖書館이 저 건너 建物이다」하는 정도요、「微弱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책이 없읍니다。우리가 가게에 물건을사러 갈때 「나 가게에 가면 무슨 물건이든지 있더라」는 경험을 가지면 그가게만을 찾듯이 圖書館에 가면 무슨 資料든지 갖추고있다」는 信念이 앞서야 하겠는데 「우리 圖書館에 그책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부터서 굴뜨기 고지없읍니다。 우리大學의 資料를 어떻게 가 모르는데 아니어서무리하게 말씀못드리겠읍니다마는、그러나 적어도학생들의 基本圖書、敎授들의 專攻에 必要한 最少限의 硏究圖書는 갖추어 주셔서 바랍니다。

▲張=執行委員을 뽑아서 「今週의 名著」 또는 「今週의 良書」를紹介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宋=네、그렇지 않아도 구상은 하고 있읍니다。

▲李=또 하나는 책을 貸出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읍니까? 申請해 놓고 있으면 이 책은 누가 빌렸는지 알 수 있지요。

▲張=그런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 申請書 만 작성하면 그 책을 빌려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宋=그러면 그 책을 빌려 가는 것은 어떻읍니까? 그 책을 빌려 가는 것은 그 책을 빌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빌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빌려 가는 것이 아니라

韓國大學의 病弊

<行政大學院> 李璜雨

"學問하는 姿勢定立을"

學生은 無氣力·無定見한 候鳥

國家社會의 將來性은 大學敎育이 제대로되어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할수있다。그래서 大學敎育은 國家社會에 棟梁이될「엘리트」를 養成하는 곳으로 일러왔으나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일관해온 느낌이짙음은 否認할수없다。「敎授는있어도 스승은없고 또學生은 있어도 弟子는 없다」는 式의 속담이 나올정도로 師弟之間의 對話는「바리케이트」를치채 무너질줄 모르고있는것이 現實情이다。어떤 敎授는 研究寥 指揮棒도 없이 구름잡는 雜談들로 유흥가를 재집 饒속에 自己의 座標를設 定하는것이 아니라 自己 意識構造의 개혁인 것이다。스스로의 運命을第3 民族 命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특히 獨逸의 伯林大學「나폴레옹」의 권새로 運命이 風前燈火 不朽의講演으로 祖國愛를 일깨운「파히테」總長의 精神을 이어받아 大學이祖國에대한 使命感에 젖어있었던 例를 보면 어속명백해진 것이다。

그러나 韓國大學에 있어서 敎授는 극히 少數의 阿附者를 제외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곧學生들의 失意와 虛脫을 겪주고 學問하는 建設的인 자세를 가눌 용기를 상실케한다。

이와같은 慾求不滿이現實參與라는 窮型完를 만들고 있다고 할수있을것이다。

오늘날 韓國의 大學은 이러한 병폐로인하여 學生들을「캠퍼스」의 硏究室이나 圖書館이아닌 번화가로 추방하였고 世俗에 쉽사리 물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할수있다。

大學이 學生들을 進取的이고 反抗的인「엘리트」를생산하기에 앞서 順應하여 순종하는 綿羊을 만들고 있는 분위기를 造成해줌으로써 工夫하는 大學으로 매진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國氣造成을 내걸고 고리타분한 數世紀前의 遺物만을 떨어놓는다。게다가 學生들은 眞實을 배우지 못하고 冷笑와 虛脫을 머금은 채「캠퍼스」를떠난다。

그러므로 後進國에 있어서 일반적인 병폐라고 하는「내년은누구일까 어디 게실까」式의 無氣力이다。「캠퍼스」일각에서 하고 無意慾的인 생활태도로 方向잃은 候鳥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學士群들에게는 慰安을 주는 손길도 方向을 提示해주는「모세」의 그마한일부터 실천을하자 는 움직임은 메마른學園에 청량제가 될수있을것 이다。이러한 運動은결국 名門이라고하는 美國의「하버드」大學이나 佛國西 部「소르본」大學이 바늘 구멍들어가기만큼 入學이 어렵고 入學後 學點取得 30%는 學業을 포기한다고 애기는 그 大學이 民族知性의 道場으로서便 利己와 自由를바탕으로全 體의 座標를設 定하는것이 아니라 自己 意識構造의 개혁인 것이다。스스로의 運命을第3 民族 命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특히 獨逸의 伯林大學「나폴레옹」의 권새로 運命이 風前燈火 不朽의講演으로 祖國愛를 일깨운「파히테」總長의 精神을 이어받아 大學이祖國에대한 使命感에 젖어있었던 例를 보면 어속명백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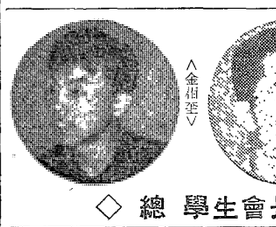
그러나 韓國大學에 있어서 敎授는 극히 少數의 阿附者를 제외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곧學生들의 失意와 虛脫을 안겨주는 無關心과 버림속에서 自己의 생활에만 급급하고있으니 學生들에 대하여 好意的이 아니었다고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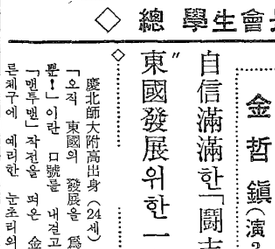
大學이 그本來의 使命을 忘却하였을때 師弟間의 通路는 열릴수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곧學生들의 失意와 虛脫을안겨주고 學問하는 建設的인 자세를 가눌 용기를 상실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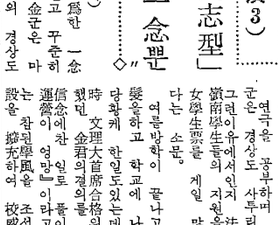
이와같은 慾求不滿이現實參與라는 窮型完를 만들고 있다고 할수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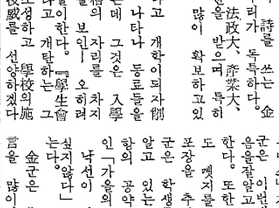
오늘날 韓國의 大學은 이러한 병폐로인하여 學生들을「캠퍼스」의 硏究室이나 圖書館이아닌 번화가로 추방하였고 世俗에 쉽사리 물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할수있다。

大學이 學生들을 進取的이고 反抗的인「엘리트」를생산하기에 앞서 順應하여 순종하는 綿羊을 만들고 있는 분위기를 造成해줌으로써 工夫하는 大學으로 매진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金哲鎭(演3)

自信滿滿한「鬪志型」"東國發展위한 一念뿐"

慶北師大附高出身(24세)

「오직 東國의 發展을 爲한 一念뿐!」이란 口號를 내걸고 꾸준히 「멜루벤」작전을 펴온 金군은 마른체구에 예리한 눈초리의 경상도 68學年度 學生會長選擧가중반전에 접어들었다。14일 立候補者所見發表에 이어 15일 投票에 들어가면 놓어도 10시에는 開票완료, 當落이 判明될 것 같다。이번 총학장 선거에서는 金相奎(法3)、田泳和(經行3 哲鎭(演映3)、金 君등이 三巴戰을이루고 總副 會長에는 韓東洙(行3) 군과洪 月杓(法3) 嬢이 맞서고 있다。세總會長 候補의 면모를 살피고 그들의 主張을 들어본다。(기호順)

◇"自己의 實力은零 로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社會에 나와서도 滿때문에 社會에 나와서도 이를 昇華시키지못한 病들에 걸리고 있음을 본다。

어떤 敎授가 낸 統計를보면, 學士의 불과 10%가 就職을하고 있다니 나머지는 무엇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것 일까? 이러한 不條理를 보고도 大學敎育이 正常的이라고 할사람은없다。

비싼 登錄金을 마련하고자 副職을 求하려고뛰다보면 自己의 眞實한 學問은 뒤로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社會 學問을 연구할기회는 즉처럼 주어지지못하는데서 起因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責任은學生이나 家庭이나 社會에만있는것이아니라 最高 學府인 大學에도있다는것이다。「캠퍼스」일각에서 새물결運動이전개되고 조그마한일부터 실천을하자 는 움직임은 메마른學園에 청량제가 될수있을것 이다。이러한 運動은결국 直接行動하기 보다는 行動方案으로써 工夫하는 것이다。知性의 「소르본」大學이 바늘 구멍들어가기만큼 入學이 어렵고 入學後 學點取得 30%는 學業을 포기한다고 애기는 그 大學이 民族知性의 道場으로서便 利己와 自由를바탕으로全 體의 座標를設 定하는것이 아니라 自己 意識構造의 개혁인 것이다。스스로의 運命을第3 民族 命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특히 獨逸의 伯林大學「나폴레옹」의 권새로 運命이 風前燈火 不朽의講演으로 祖國愛를 일깨운「파히테」總長의 精神을 이어받아 大學이祖國에대한 使命感에 젖어있었던 例를 보면 어속명백해진 것이다。

그러나 韓國大學에 있어서 敎授는 극히 少數의 阿附者를 제외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곧學生들의 失意와 虛脫을안겨주고 學問하는 建設的인 자세를 가눌 용기를 상실케한다。

이와같은 慾求不滿이現實參與라는 窮型完를 만들고 있다고 할수있을것이다。

오늘날 韓國의 大學은 이러한 병폐로인하여 學生들을「캠퍼스」의 硏究室이나 圖書館이아닌 번화가로 추방하였고 世俗에 쉽사리 물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할수있다。

大學이 學生들을 進取的이고 反抗的인「엘리트」를생산하기에 앞서 順應하여 순종하는 綿羊을 만들고 있는 분위기를 造成해줌으로써 工夫하는 大學으로 매진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田泳和(警3)

모범생다운「誠實型」"東大氣質바꾸겠다"

忠南 瑞山農高出身(23세)

스포츠型 머리, 惡意없는 인상, 깍듯한 인사, 밝길에 게다가 端正한 ROTC복장에 두툼한 체구의 田군은 모범생다운「誠實型」이다。

金哲鎭君보다 뒤늦게 시작하여 처음에는 약간 뒤진인상을 주다가 최근에 열세를 만회하여 兩金군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다。

역력하다는 警行科에 규율이 자유분방해야 하는 警察科에로가 많다는 田군은 『學生會의 正常化를위해 學生會를 학생의 손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말하여 학교당국의 지나친 간섭을 비난한다。

그래서 學生會機構改編 正防止등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東大의 氣質을 根本的으로 바꾸어놓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田군은 『知性人들의 東國으로 만들기위해 깍쟁이도』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나지신과 학교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마음으로 보는 태도부터 유권자들의 깨끗한 票를 갈망한다。

綱領에는 學生活動의 目的이외 수없고 그 過程인이상 각일후보자들이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바 사실新聞社는내 不渡手票 달라, 「다데」로해달라, 사진이 특혜다고 불평할 때 나는 몇번이나 혼들 거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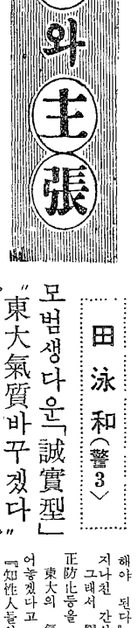
찬영대는 영웅이나 된 빠야할 내人生行程에 마 만한 불금에 假拂人生은 되지 말며 바르게 뛰어다 니다。△前取材·寫眞記者, 忠淸道 農林大學生들의 지원을받으며 熱心 一部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듯。

『知性人들의 東國으로 만들기위해 깍쟁이도』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나지신과 학교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마음으로 보는 태도부터 유권자들의 깨끗한 票를 갈망한다。

綱領에는 學生活動의 目的이외 수없고 그 過程인이상 각일후보자들이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바 사실新聞社는내 不渡手票 달라, 「다데」로해달라, 사진이 특혜다고 불평할 때 나는 몇번이나 혼들 거렸답니다。

찬영대는 영웅이나 된 빠야할 내人生行程에 마 만한 불금에 假拂人生은 되지 말며 바르게 뛰어다 니다。△前取材·寫眞記者, 忠淸道 農林大學生들의 지원을받으며 熱心 一部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듯。



金相奎(法3)

活動的인「鬪爭型」"改革을위한투쟁뿐"

서울中央高出身(24세 검은 얼굴 호리호리한 몸매에 활동적인「鬪爭型」이다。1학년때부터 學生會모에 앞장서 「6·8不正選擧」규탄데모에 주역을 담당해서인지 비교적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人物。

『學生會는 學生全體가 參與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金군은 『의대한 東國建設의 根本的인 解決策은 改革, 金군은 『의대한 行動方案으로써 工夫하는 것이다。

숙히 숨겨져 있는 不正, 부패를일 깍는 運動場問題등 슬한 難題의 解決에 진력하겠다고 피력한다。

것은 先手術 後治療로 70年代의새 當選이의미 所信껏「鬪爭」하다。

所期의 目的達成을 기할수 없다고 何時라도 總會長職을사 생각될때는 用意가있음을 밝혀 대단한 각오를 보이기도 한다。

백가지 公約보다는 한가지實踐이 더라도 學校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굳은 決意를보였다。

끝으로 한 가지를 외치고 있다는 金군은 『이번에 만은 投票해야 한다。또한 『어떠한 난관이 있드라도 맺지를 改造하고 軍道(캠퍼스) 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金군은 학생들의 그그만 불만까지잘 알고 있는듯했다。金군이 내건 4개항의 공약가운데는 『이번 낙선이 되는 경우는 『생각해보고 낙선이 않다』고 말하며 여유있게 웃음을 띠었다。

金군은 代議員會에서 예리한 發言을 많이하기로 이름이 났다。

◇退任記者席◇
◇滿期退役하는 兵士가 부럽습니다。자랑스런 나 나는 불발탄도아닌, 어쩌면 자랑스런 脫營이지만 또다른 入隊가있기에…
떠나가는사람이 有口이라는 그래도 아쉬워 울음이 없을수야 없겠지 혼자, 뒷구석에서 허둥대느 少女와 만날적마다느 요。허지만 그간 잊혀지야 했던 사진기자。其人 껀 감정이었다면 비웃어 않을게 大學言論의 主人은 자기 私的인 일로 줄까— 힘찬 마음의 勇 지 않는 기억들이 많음 「자기들의 記者」인것처 럼 외닿다라 하고。참말진 을 내려놓고 싶다。 니다。원고청탁, 지난 가 「K君의 家庭敎 師로 들어간것이 맹을잡 있어 就職도 되고 結婚 도 했으니。」 이렇게 오늘의 學士群 들의 생각이 大學生活에 서 얻은 失意와 慾求不 滿때문에 社會에 나와서 도 이를 昇華시키지못한 病들에 걸리고 있음을 본다。

어떤 敎授가 낸 統計를보면, 學士의 불과 10%가 就職을하고 있다니 나머지는 무엇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것 일까? 이러한 不條理를 보고도 大學敎育이 正常的이라고 할사람은없다。

비싼 登錄金을 마련하고자 副職을 求하려고뛰다보면 自己의 眞實한 學問은 뒤로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社會 學問을 연구할기회는 즉처럼 주어지지못하는데서 起因된 현상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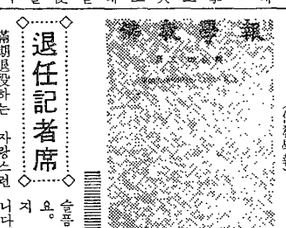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責任은學生이나 家庭이나 社會에만있는것이아니라 最高 學府인 大學에도있다는것이다。「캠퍼스」일각에서 새물결運動이전개되고 조그마한일부터 실천을하자 는 움직임은 메마른學園에 청량제가 될수있을것 이다。이러한 運動은결국 直接行動하기 보다는 行動方案으로써 工夫하는 것이다。知性의 名門이라고하는 美國의「하버드」大學이나 佛國西 部「소르본」大學이 바늘 구멍들어가기만큼 入學이 어렵고 入學後 學點取得 30%는 學業을 포기한다고 애기는 그 大學이 民族知性의 道場으로서便 利己와 自由를바탕으로全 體의 座標를設 定하는것이 아니라 自己 意識構造의 개혁인 것이다。스스로의 運命을第3 民族 命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특히 獨逸의 伯林大學「나폴레옹」의 권새로 運命이 風前燈火 不朽의講演으로 祖國愛를 일깨운「파히테」總長의 精神을 이어받아 大學이祖國에대한 使命感에 젖어있었던 例를 보면 어속명백해진 것이다。

그러나 韓國大學에 있어서 敎授는 극히 少數의 阿附者를 제외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곧學生들의 失意와 虛脫을안겨주고 學問하는 建設的인 자세를 가눌 용기를 상실케한다。

이와같은 慾求不滿이現實參與라는 窮型完를 만들고 있다고 할수있을것이다。

오늘날 韓國의 大學은 이러한 병폐로인하여 學生들을「캠퍼스」의 硏究室이나 圖書館이아닌 번화가로 추방하였고 世俗에 쉽사리 물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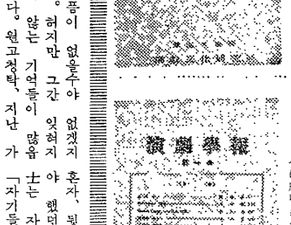
大學이 學生들을 進取的이고 反抗的인「엘리트」를생산하기에 앞서 順應하여 순종하는 綿羊을 만들고 있는 분위기를 造成해줌으로써 工夫하는 大學으로 매진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찾아야 할 座標 따로 있어

매는것은 勇斷

生活主軸상실한 錯覺의 연속


◇退任記者席◇
◇滿期退役하는 兵士가 부럽습니다。자랑스런 나 나는 불발탄도아닌, 어쩌면 자랑스런 脫營이지만 또다른 入隊가있기에…
떠나가는사람이 有口이라는 그래도 아쉬워 울음이 없을수야 없겠지 혼자, 뒷구석에서 허둥대느 少女와 만날적마다느 요。허지만 그간 잊혀지야 했던 사진기자。其人 껀 감정이었다면 비웃어 않을게 大學言論의 主人은 자기 私的인 일로 줄까— 힘찬 마음의 勇 지 않는 기억들이 많음 「자기들의 記者」인것처 럼 외닿다라 하고。참말진 을 내려놓고 싶다。 니다。원고청탁, 지난 가 「K君의 家庭敎 師로 들어간것이 맹을잡 있어 就職도 되고 結婚 도 했으니。」 이렇게 오늘의 學士群 들의 생각이 大學生活에 서 얻은 失意와 慾求不 滿때문에 社會에 나와서 도 이를 昇華시키지못한 病들에 걸리고 있음을 본다。

어떤 敎授가 낸 統計를보면, 學士의 불과 10%가 就職을하고 있다니 나머지는 무엇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것 일까? 이러한 不條理를 보고도 大學敎育이 正常的이라고 할사람은없다。

비싼 登錄金을 마련하고자 副職을 求하려고뛰다보면 自己의 眞實한 學問은 뒤로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社會 學問을 연구할기회는 즉처럼 주어지지못하는데서 起因된 현상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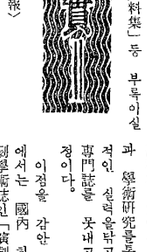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責任은學生이나 家庭이나 社會에만있는것이아니라 最高 學府인 大學에도있다는것이다。「캠퍼스」일각에서 새물결運動이전개되고 조그마한일부터 실천을하자 는 움직임은 메마른學園에 청량제가 될수있을것 이다。이러한 運動은결국 直接行動하기 보다는 行動方案으로써 工夫하는 것이다。知性의 名門이라고하는 美國의「하버드」大學이나 佛國西 部「소르본」大學이 바늘 구멍들어가기만큼 入學이 어렵고 入學後 學點取得 30%는 學業을 포기한다고 애기는 그 大學이 民族知性의 道場으로서便 利己와 自由를바탕으로全 體의 座標를設 定하는것이 아니라 自己 意識構造의 개혁인 것이다。스스로의 運命을第3 民族 命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특히 獨逸의 伯林大學「나폴레옹」의 권새로 運命이 風前燈火 不朽의講演으로 祖國愛를 일깨운「파히테」總長의 精神을 이어받아 大學이祖國에대한 使命感에 젖어있었던 例를 보면 어속명백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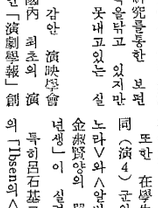
그러나 韓國大學에 있어서 敎授는 극히 少數의 阿附者를 제외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곧學生들의 失意와 虛脫을안겨주고 學問하는 建設的인 자세를 가눌 용기를 상실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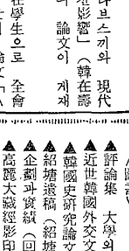
이와같은 慾求不滿이現實參與라는 窮型完를 만들고 있다고 할수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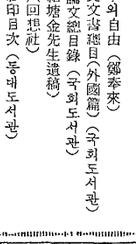
오늘날 韓國의 大學은 이러한 병폐로인하여 學生들을「캠퍼스」의 硏究室이나 圖書館이아닌 번화가로 추방하였고 世俗에 쉽사리 물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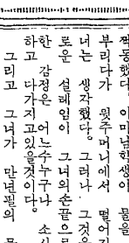
大學이 學生들을 進取的이고 反抗的인「엘리트」를생산하기에 앞서 順應하여 순종하는 綿羊을 만들고 있는 분위기를 造成해줌으로써 工夫하는 大學으로 매진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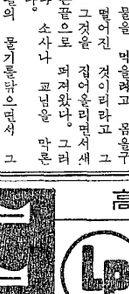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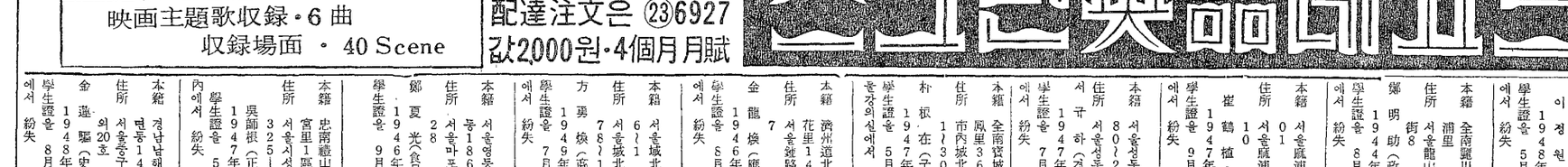












紛失廣告